

## 언약인생 (여호수아 3:1-13)

오늘 제목은 언약인생이다.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언약이 있다.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절대 하나님에 양보 안하는 언약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절대양보 안하고, 아무도 막지 못한다. 내 인생이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기적의 인생이 된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안 들어가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다. 그 절대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이다. 이것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 아이들은 무조건 여기에 맞춰서 키우라. 그게 아이들을 가장 잘 키우는 것이다. 이런 저런거 생각 많이 할수 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여기에 아이를 출세워야 한다. 그러면 아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언약 인생이다. 조금 자세히 말하면 절대 언약 인생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유는 이 운동에 쓰실 이유가 있으니까 주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간접적으로,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은 다음대에,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이 복음운동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 앞에 남은자이다. 오늘 장로님 기도중에도 몇단어 나왔는데, 정말 그렇다. 잘 생각해보라.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전세계 몇 명이나 될것인가? 놀라운 일이다. 시대는 자꾸 약해지고 교회는 힘을 잃어 간다. 이런 시대에 교회와 시대를 동시에 살릴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할수 있다. 복음은 누구든지 살린다. 복음 안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복음은 누구나 살린다. 시대고 뭐고 복음은 반드시 재앙을 막는다. 성경의 결론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이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많은 말씀을 남기셨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된 각인이라도 복음 들어가고 말씀 들어가면 뒤집어 지게 되어 있다.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다 필요 없다. 복음 들어오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복음은 절대 못 이긴다. 그래서 이 언약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가 너무나 중요하다. 요게벳, 모세, 한나와 사무엘 생각해보라. 아주 작은 전달이 시대적인 일로 바뀌었다. 대신 리브가는 어떤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 말씀 받았다. 큰 자가 어린자를 섬긴다. 그런데 리브가는 자기가 받았으면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을 잘 안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는 둘째로 태어나도 장자권은 나에게 있다는 확신이 들때까지 계속 말했어야 한다.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너는 첫째 태어나서 장자이지만 장자권은 야곱에게 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하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처음에는 안하려고 했다. 무릎 꿇을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야 했다. 남편에게도 말 안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에서보고 말하기를 고기 요리해오면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 했다. 우리 가문에서 처음 복음 받은 사람들은 중요한 사명이 있다. 리브가처럼 하면 안된다. 가족 다 깨진다. 확실히 이해할때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일때까지 끝까지 말했어야 했다. 그랬으면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복음은 반드시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힘이 들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언약으로 잡고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 복음 안에 있는데도 확실히 잘 안되는 것은 아직 시간표가 안된 것이다. 또는 뭔가 다른 것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중요한 것을 안 잡은 것이다. 중요하게 뭐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다. 여하튼 이거 하나로 끝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다. 나는 이것 한다. 따라와. 그러면 내가 니 인생 기적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세지이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확인하고 승리하는 한주간 되기 바란다.

### 1. 언약인생

오늘 말씀은 언약계를 따라가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땅으로 건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물이 저 멀리 위까지 밀려 올라가 거기서 멈췄다. 놀라운 일이다. 요단 강은 우리가 아는 분은 알겠지만 요단강 끝에 가면 헬몬산이

있다. 지금 시리아에 있는 산이다. 거기서 눈 녹은 물이 내려오는 것이다. 그게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아래로는 사해로 내려간다. 갈릴리 호수가 바닥보다 낮다. 그게 200m나 낮다. 그리고 사해는 바다보다 400m나 낮다고 한다. 그러면 자연 높낮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려오면 어떤때는 급물살이 있기도 하고 소용돌이가 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강폭을 누가 재었는데, 평균 강폭이 30미터정도 된다고 하고 깊이는 1-3미터 정도 된다고 한다. 평소에는 3-4미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폭이. 그런데 물이 많이 넘칠때에는 수십배나 불어나는 곳이라고 한다. 이 때는 강폭이 넓을 때에는 1.6Km정도 되기도 한다고 한다. 우리가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물이 너무 많아서 독에 넘치는 것이다. 그 때가 이때라는 것이다. 16절에 보면 그 많은 물이 아담성을 번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흘러간 물이 온전히 끊어 졌다는 것이다. 백성이 여기고 앞으로 바로 걸어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17절에는 제사장들이 강북편에 우뚝 섰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 위로 걸어 갔다는 것이다. 이것이 여기고 근방인데, 여기고 근방에 아담이라는 성읍까지가 22Km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물이 22Km나 밀려 올라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쌓여 섰다고 하였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 간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록한 본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언약계를 따라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책에 왜 기록했을까? 너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다. 너도 언약계를 따라가면 마른 땅을 건널 것이다. 언약을 잡고 살아라는 것이다. 언약을 따라 살라는 그 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 없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는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꼼짝을 못한다. 죄만 없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법을 어기는 죄를 안 지었다면 검사나 경찰이 나에게 할 일이 있는가? 그러나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꺾을 답이 필요한 것이다. 그 답이 언약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약속의 피제사 그런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다. 쪽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삼일간 성경하게 하라고 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였다. 시간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계를 메고 가라고 하였다. 4절에 보면 백성들에게는 불어가지 말고 2천규빗, 1키로미터 정도 되는데 떨어져서가라고 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것이라고 했다. 한번도 안 가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언약계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에 잠기니까 그 즉시로 물이 22Km 위로 가서 멈췄다. 그래서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고, 제사장들은 다 건널때까지 거기 서 있었다. 너희도 언약으로 살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림이다. 너도 언약으로 살면 너의 인생에 마른 땅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니가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갈 때까지 내가 너의 인생의 한 복판에서 너를 지킬 것이라는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믿어야 한다.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 때 나는 복음을 누림으로 내 자신을 성경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다. 이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적들은 다시 한번 간담이 녹았을 것이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 졸았을 것이다. 겁이 얼마나 났겠는가? 홍해를 갈랐고, 전쟁 불을 때마다 다 이기니 얼마나 겁이 났겠는가?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 때에 요단강이 어떤 모습인지 아는데,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니가 언약으로 살면 너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메세지이다. 니가 언약으로 살면 너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줘서 아직도 기회를 엿보는 사단을 박살낼 것이다. 그 사단이 다시 한번 간담이 녹을 것이다. 너는 언약으로 살라. 이 말이다. 이것이 언약 인생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응답 받을 수 있다. 응답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은 답을 얻기 바란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언약으로 들어와야 한다. 절대 언약이 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무조건 기적의 연속이다. 시대적인 응답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누리고 고백하고

다시 잡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인생이 된다. 내 인생의 모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다. 증인들 많이 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다. 한국에도 많은 증인들이 있다. 못 믿겠으면 한달정도 시간내서 한국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라. 언약 인생,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인생 사는 사람은 전부다 인생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렇게 안해도 괜찮다. 우리는 절대 언약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절대 언약,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를 향해 사는 것이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인생 계속 회복되게 되어 있다.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아이들이 공짜로 기적의 인생을 산다. 그리하게 되어 있다. 성경의 결론이고 주위에 증인 많이 있다. 우리도 자꾸만 그렇게 보여가고 있다. 출발이 늦어서 안타깝다. 30-40년 전에 시작했으면 지금쯤 어디 가고 있을텐데. 오늘도 하라. 오늘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구주라고 잡으라. 그리고 전도자의 인생 살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모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이다. 모든 문제가 문제 안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역전되어서 축복으로 뒤집어 저 버린다. 이것이 답이다. 뭐가 답인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향하여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간단하고 쉽다. 안해서 안되는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 2. 플랫폼

컨텐츠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플랫폼, 모체가 되어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도해주신 은혜가운데 언제나 집회를 잘 마쳤다. 미국 선교사님, 또 초청한 목사님들은 다 왔는데, 로컬 목사님들이 안 왔다. 조금 아쉬웠지만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되었다. 미국 선교사 두분은 메시지를 듣다가 별로 맘에 안한다고 하고 하루를 남겨두고 돌아갔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분들을 초청한 분들도 백인 선교사인데, 치아파스의 젊은 선교사인데, 이분들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다.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냐. 그러면서 7년만에 돌아온 르네 목사가 있었다. 호세아 목사를 만나게 했던 목사이다. 자기가 나와서 간중하면서 자기가 7년만에 돌아왔다고 하였다.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다. 영원히 안돌아올수도 있고 돌아올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거 신경쓸 필요 없다. 하나님 하라는 것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외의 분들은 말씀을 잘 받았다. 미국 선교사중에서는 아주 큰 문이 될 만한 분도 있었다. 이 분이 이스라엘 목사님처럼 방송선교를 하는데, 라이브로 들어오는 분들이 한 8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자기의 팔로워가 파키스탄에도 2천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 분이 은혜를 받고, 피닉스 컨퍼런스에 참석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오면서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였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받고, 아닌 사람은 아닌 것이다. 로스카보스에서 두분을 초청했는데, 두 분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나에게 오라고 하였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 니카라과, 베네주엘라, 쿠바, 앞으로 이렇게 올해 안으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것이 플랫폼 교회이다. 성경에서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이다.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메시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밖에 있던 단어이다. 원래 우리가 기차타려고 기다리는 곳이 플랫폼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다. 인터넷이라는 것을 만들면 사람들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웹사이트같은 것이 플랫폼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같은 것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영적인 컨텐츠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남미를 두고 많은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복음과 전도에 관련된 많은 영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보내면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해서 눈을 여는 것이다. 전도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것들도 딱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다. 기도 하기

바란다. 시간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움직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쿠바에 오늘까지 선교중인데, 인터넷 사정이 안좋으니 인터넷 되는 곳에 가서 어제 한꺼번에 사진을 보냈다. 그래서 김태호 장로님에게 보냈는데, 정리해서 올릴 것이다. 남미에 가면 인터넷이 잘 안되서 소통이 안되는 곳이 많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게 답이다. 그런데 교회보다도 내 개인이 먼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성삼위 하나님안에 있는 많은 이유와 방법을 내가 먼저 가져야 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남을 살리는 것이다. 내가 먼저 응답을 체험해 가야 한다. 다 체험하고 난뒤에 살리는 것이 아니다. 체험해 가면서, 증인되어 가면서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속 살려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있고 언약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을 향하여 문을 열게 되어 있다. 이런 성도들로 충만할 때 그 교회가 영적인 플랫폼 교회가 되는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가 사명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열리는 문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진짜로 시작이다. 어느정도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 그러나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리된 렘넌트가 계속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렘넌트를 보좌할수 있는 중직자가 계속 나와야 한다. 70인 제자이다. 중요하다. 사도들보다도 먼저 순교했다. 스테반, 70인 제자이다. 중요하다.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렘넌트 있기 전에 아버지 엄마가 다 중직자들이었다. 언약잡으라.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떠한가부터 시작한다. 인생 혹 잘 안풀리는가? 아니면 이거 진짜 한번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가? 마른땅으로 어떻게 걷는가? 언약 잡아라. 언약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니가 세계복음화하라. 내가 축복한다. 그러면 내가 니 인생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겠다. 약속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간단하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언약에 따라가고, 보좌의 증거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플랫폼 교회의 컨텐츠이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마음에 담고 가라. 하나님에게는 절대 계획이 있다.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메시지는 많이 들었다. 그냥 들었는가? 생각했는가? 이게 뭔가 생각한번 해봤는가? 그걸 한번 정리해서 기록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통한다. 그 전에는 헛돈다. 복음 안에 있고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이다. 중직자요, 언약이다. 확인해봐야 한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것은 아무도 못 바꾼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성취한다. 절대 못 막는다. 성질 좀 못되도 괜찮다. 이거 하는 사람은 축복받는다. 사람이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는데, 이거 안하면 안타까운 것이다. 여기에 인생을 맞추라. 그냥 기도하고 살아도 은혜 받는다. 렘넌트들도 생각해보라. 그냥 기도하고 신앙생활해도 은혜 받는다. 응답도 나타난다. 그런데 시대적은 안된다. 진짜는 안된다. 모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은 안된다. 때로는 젖은 땅에서 허덕이게 된다. 다시 생각해보라. 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는지.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계획이다. 아무도 못 막는다. 이유가 뭐든지 안간다는 사람은 다 죽었다. 가야 한다. 그러면 다른거 안하는데도 응답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오면 절대적으로 기적이야, 절대 언약이다. 이것은 세상의 누구도 못 막는다. 절대적이다. 마음에 각인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에게는 세계복음화, 미국 복음화, 남미 복음화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렘넌트 운동, 다민족 운동 절대적인 것이다. 이해하는가? 그런데 마음이 안 열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기도해야한다. 그리고 기도제목 잡으라. 하나님 내가 왜 이럴습니까? 이것이 내 마음에 안들어오면 병 난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대로 놔둬도 되나? 내가 손해본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라는 것이다. 들을때에는 너무나 맞는데, 울었어도 일어나면 잊어버린다.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이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내게 내 인생이 되고 인생 언약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틀림없다. 이번 주간에 이런 축복 넘치도록 받기를 바란다.